

9월, 만남.

가슴따뜻해지는 무언가를 만났습니다.



diary ●

녹색소비 ●

캄보디아 한달살이-자기반성 ●

-팀반성 ●

9월 사진전 ●

#1. 캄보디아와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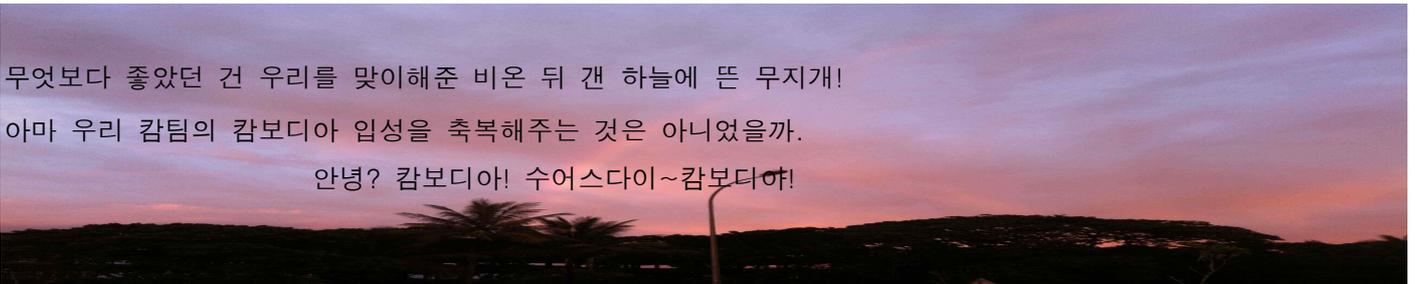
안녕? 캄보디아!

캄보디아로 떠나기 전 날, 서울 방화동 합숙소. 이런 저런 생각과 싱숭생숭한 기분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새벽 일찍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서는 정신없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하고 먼저 출발하는 팀들을 배웅하고 사진을 찍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를 하다 보니 어느덧 우리 캄팀이 출발할 차례. 수화물 부치는데서 진을 빼고 겨우 마지막으로 간사님, 남은 6기들과 인사를 나누며 캄보디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경유지에서도 검색대에서 짐을 풀어 검사받고, 출발시간이 연기 되는 바람에 한참을 기다리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도착한 캄보디아! (공항에서 나오는 데에도 꽤나 긴 시간이 걸렸다 Y_Y 그러나 공항 직원에게 '예쁘다'라는 소리를 들은 캄보디아 미인 이양의 얼굴에는 미소가...흐흐). 작고 아담한 캄보디아 시엠펀 공항의 풍경. 음 캄보디아 냄새~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가족분들^^ 지난 밤 괜한 걱정을 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 시작 될 캄보디아 생활이 기대 되고 심장이 두근 두근 거렸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우리를 맞이해준 비온 뒤 갠 하늘에 뜬 무지개!
아마 우리 캄팀의 캄보디아 입성을 축복해주는 것은 아니었을까.
안녕? 캄보디아! 수어스다이~캄보디아!



첫 느낌, 가슴으로 전해진 따뜻함.

캄보디아에 도착한 첫날 원장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내일부터 이들의 주말 동안 숙소 근처 시엠펀 지리를 파악하라!" 지령을 받은 다음날 우리는 당장 자전거를 타고 집 밖을 나섰다. 어제 차를 타고 들어왔던 길을 어렵듯이 떠올려가며 무작정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모르는 길은 물어가며 어차피 길은 모두 통하기 마련이니까^^



캄보디아 시엠펀은 앙코르와트가 있는 관광업이 발달한 도시이다. 시내에는 숙박업소나 상점들이 많고 외국인도 그만큼 더 많았다. 처음 캄보디아라는 나라 이름만 생각하고 빈곤국가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지였던 것이다. 많은 상점의 간판들 그리고 간간히 눈에 띄는 한국 식당의 간판들도...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일상. 가끔 우리를 재밌는 듯 쳐다보는 현지인들도 있었다. 다섯이서 쫄로리 노랭이 조끼를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이곳 저곳을 두리번 거리며 다니니 웃길 수 밖에. 생각보다 화려하지만 좁은 시엠펀 번화가를 둘러보고 이번에는 재래시장에 방문했다. '푹싸 짜'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리는 음식점 거리 근처에 있어 외국인을 상대로하는 상점들이 많다. 기념품이나 옷가지들을 파는 가게가 많고 시장 내부에는 과일이나 해산물, 육류 등 다양한 먹을 거리를 판다.



쇼핑을 좋아하는 몇몇 단원들은 바로 이곳이라며 참 반가워했다. 그러나 쇼핑에는 전혀 흥미 없는 단원은 겨우 한바퀴 돌고 허를 내들었다. 이렇게 취향이 달라서야... 다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좀 더 멀리 달려 '푹사 르' 시장으로 갔다. 같은 재래시장이지만 조금더 구수하고 사람 냄새가 나는 이곳. 시골 장터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이었다. '푹사 르'는 음식의 종류가 좀 더 다양했다.

더운 나라인 만큼 캄보디아는 영장식품이 발달했는데, 코끝을 찌를 듯한 젓갈 냄새가 정신까지 혼미하게 만들었다. 쉽게 적응하기 힘든 냄새였다. 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그만 조군의 자전거 체인이 빠져버렸다. 다들 멈춰서서 깡깡대며 고쳐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한 남자가 손에 기름때를 거침없이 문혀가며 똑딱 고쳐주시는게 아닌가. 그리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기분 좋게 웃는 그 사람. 처음 현지인과의 직접적인 교류에 가슴까지 따듯해지는 순간이 왔다. 캄보디아의 첫 느낌은 바로 '가슴으로 전해지는 따듯함' 이었으리라.

캄보디아 일상다반사.

다일공동체 원장님 가족들과 몇몇 스텝분들과 함께 숙소생활을 하게됐다.

현재 캄보디아 날씨는 우기에 접어들어 비가 수시로 오지만 처음 도착한 며칠 동안은 정말 찜통 더위였다. 올해의 두 번째 여름을 맞이 한 듯한 기분이다.

하지만 그 더위도 당연하게 여겨다보니 살만하다.

한국에서는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땀이 나도, 짜증나고 에어컨이 켜져있는 시원한 곳을 찾는데 이곳에서는 그냥 그 더위를 즐기게 되었다.

땀이 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겠으니^^



처음 부원장님께서 이곳에는 짜란짜란(많아 많이) 한 것이 많다고 하셨다. 그것은 바로 개미! 빵 부스러기가 조금만 떨어져도 개미는 순식간에 몰려든다. 더운 나라에서의 특권은 열대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 과일 먹은 접시를 테이블에 잠시만 올려두어도 개미들이 짜란짜란.



또 하나 짜란짜란 한 것은 도마뱀이다. 크기는 제각각인데 보통 손가락 크기 만한 것이 많다. 침대 밑에도 화장실 벽에도 계단에도 요것들이 쑥 나타나서 사람을 놀래킨다. 처음엔 깜짝 놀라서 각각 비명을 지르기도 했었는데 그 비명에 더 놀라 도망가는 이 녀석들을 보니 이제 귀엽기까지 하다.

이 밖에 모기도 짜란짜란 바퀴벌레도 짜란짜란 온갖 벌레들은 다 짜란짜란한데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는 그냥 이 짜란짜란 한 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들과 함께라 캄보디아의 생활이 든든하다.

#2. 다일과의 만남

다일공동체, 너 딱 내 스타일이야!!



'다양함 속의 일치' 다일공동체가 추구하는 정신이다. 내가 가장 못하는 것들을
살현하려고 하는 단체야. 다일공동체에 대한 첫 느낌은
'너무나 예쁘기에 다가가기 힘든 여인을 바라보는 입장일까?'



다일에서 하는 일

매일 700명 이상 프놈끄라움의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점심을 주는 밥퍼

거리가 멀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800개 이상의 빵을 만들어 가져다 주는 '빵퍼'

한글, 영어, 댄스, 태권도, 음악 등의 교육사업
KB국민은행 도서관
아픈이들을 위한 '다일 천사 클리닉'
배가 곧 집이고 생계수단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배 자원 사업



그리고 이곳을 찾은 각종 단기, 장기 자원봉사자들을
섬기는 사역이 주된 업무야. 우리는 이곳에서
배 자원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역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부원장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실 때 예쁜 여인을
꼬시기 위해서는 나 또한 갖춰야 할 것이 많다는
부담감과 도전정신이 동시에 생겼다.



'다일공동체, 너를 한번 꼬셔보겠다!'



어느덧 이곳에 온지 한 달.
능숙한 모습으로 각종 야채를 다듬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망고물이 들어 싸개매진 손바닥과
어디에 부딪쳐서 생긴지도 모르는 팔, 다리의 상처들을 보면서
다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아직도 서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겠다' 라고 결심하게 된다.
다일공동체 또한 이런 모습들을 보며 당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다일 너 딱 내 스타일이야^^

먼저 우리의 두목, 보스인 김형길 원장님!
우리가 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한국으로 약 2주간의 출장을 가버리셨지만... TTT
원장님을 뵈면서 느낀건 성실함과 노력하는 모습이다. 다일센터의 일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몰려오는 봉사자들의 일정관리, 후원사업과 가장으로서의 역할, 목회자로서의 삶만 보더라도
잠을 잘 시간마저 부족한 삶에도 불구하고 코메르어를 배우기 위해 새벽에 수업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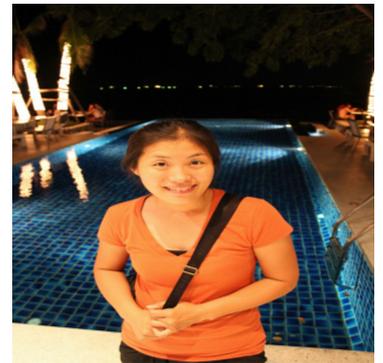


그리고 아피 포함, 8명의 자녀를 두신 김수민 부원장님!
원장님이 부재중이실 땐 실질적인 다일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면서 5살, 8살, 10살인
세 자매의 엄마이자 아피들의 엄마역할을 하시는 부원장님. 작고 가녀린 체구를
지니셨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강인함을 가지신 분이야. 원장님 못지않게
많은 업무를 하시며 피곤하실 법도 한데 자녀들과 아피들에게는 늘 따듯한 미소를
보이시며 우리를 대해주시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 그리고 가끔씩 소녀같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다일의 살림꾼이시다.



최윤정 팀장님

우리와 같이 2층을 쓰며 다일 스텝중 가장 많이 마주치는 분이야.
우리가 오자마자 '너네 영화 많이 가져왔니?'라며 외장하드를 빌려가신 팀장님은
다일에서 후원업무와 각종 사무업무를 보시면서 다일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온지 9개월 정도 되셔서 상점에 대한 정보를 주신다.
명덕이에게 장난을 치는 것을 좋아하시고 늘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시는
다일의 활력소 같은 분이야.



주희(10), 승희(8), 리희(5)

원장님 부원장님의 자녀들이자 우리들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
밤을 두드리며 "혹시 바빠?"라며 같이 놀자고 달려드는 아이들.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기에 측은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 더 같이 놀아주게 되지만
그럼에도 티 없이 밝고, 건강한 아이들야.
힘든 일과가 끝나고 이 아이들을 보면 다시 회복되는 것 같다.



이명덕 빵퍼 Teacher

조선족인 명덕이는 다일 빵퍼의 리더급 인사다.
하이톤의 "예? 예? 아니에요~"를 남발하며 원장님 또는 부원장님의 지적에
기발한 핑계를 대며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키염둥이기도 하다.
이번 휴가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아피들에게 염색을 부탁하기도 했다.
가끔씩 돌발행동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늘 키에 이어폰을 끼고 다녀다가가기
힘들 때도 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아피들과 좋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다.





분선

분선은 우리숙소에 유일한 캄보디아 현지스텝이며 못하는 것이 없는 다재다능한 청년이다. 멈춰버린 튼드라도 분선이 몇번 툽툽치면 금방 시동이 걸린다. 다일에 온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한국어도 곧잘한다. 우리가 가끔 짓궂은 장난을 쳐도 늘 미은빠야(문재있어)를 외치며 웃어주는 좋은 친구야. 센스있는 리액션으로 명덕이를 뒤흔드는 키염둥야다. 우리가 캄보디아어에 더 능숙해지고, 분선도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우면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다.

#3 프놈끄라운과의 만남

● 프놈끄라운 아이들과의 만남 그리고 행복한 미소.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 프놈끄라운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상상을 해보았다. 가난에 찌들어 희망이라곤 없어 보이는 TV프로그램에서의 모습일까? 아니면 한국 아이들과 같은 모습일까? 등등..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처음 가게 된 프놈끄라운.

수상 가옥들과 허름한 집들,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 제대로 된 옷을 입지 못해 벗고 있는 아이들.. 눈에 보이는 첫 이미지는 TV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들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다. 과연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저런 곳에서 사는 아이들은 건강할까? 가족어 자빠진 않을까? 웃음이 있는 할까?



하지만 이런 걱정은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순간 말끔히 사라졌다. 이곳의 아이들은 누구보다 잘 뛰어다니고, 자연과 어울려 놀 줄 알며, 행동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묻어나오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부끄러울 만큼..

먼저 다가와 장난을 치기도 하고, 소중한 간식거리 하나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 꽃을 꺾어 마음을 표현하면서 밝은 미소를 지어준다. 과연 한국 아이들에게도 이런 웃음을 느낄 수 있을까? 현대적인 것에 익숙해져 밝은 웃음을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정말 행복한 곳에서, 행복한 미소를 보며, 행복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어떤 만남이던 처음 보이는 이미지가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프놈끄라운 아이들에게 예외 인 것 같다. 사는 곳을 보며 안 좋았던 이미지는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로 잊혀진다. 프놈끄라운 아이들과의 첫 만남 그리고 행복한 미소. 우리를 설레고 행복하게 한다.

#4 한글학교와의 만남

여감 좋은 날

가나긴 방학이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될 때의 기분좋은 설렘과 긴장은 새로운 만남을 더욱 더 빛나게 한다. 누구에게나 새 학기는 방학동안 그리웠던 아들과 재회하는 반가움의 시간이고 새로운 아들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낯설음의 시간일 것이다. 우리들은 막 새학기를 맞이하는 초등학생들 마냥 들뜬 기분과 긴장감을 안고 빛나는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한글학교로 향했다.

시원하게 뚫린 공항도로를 지나 울퉁불퉁 사이길 쯤반 쯤 아이들 재타의 꿈이 영글어가는 그 곳, 한글학교가 있다. 한글학교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국아이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국어, 수학을 공부하며 한 주 동안의 재타의 자신의 생활을 공유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반가운 친구들과 즐겁게 놀면서 공부하는 곳인 것이다.

어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물어났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는 아이들도 있었고, 개구진 남자 아이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방학 동안의 뽀뽀한 이야기를 대신하는 듯 했다. 또 어느 친구들은 우리의 정체? 에 대해 궁금해 하기도 했다. 드디어 우리의 정체가 밝혀 지는 순간! 내 눈에는 보였나. 보고야말았다. 몇몇 살랑하는 눈빛들..... ^^ (내가 너희들 다 기억할테다..... 하하^^)



우리들은 각자 맡은 반으로 흩어져서 처음 만난 아이들과 서로를 소개하고 반 이름, 반 규칙 등을 정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아! 그리고 마침 개학 날이 한국 추석연휴여서 아이들과 함께 추석맞이 송편을 빚는 시간도 가졌다. 조물조물 작은 손으로 서로 예쁜 송편을 빚겠다며 애쓰던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재타 개성넘치는 송편을 들고 아이들은 싱글벙글. 학교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캄보디아의 한국아이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바쁘시다. 또 같은 또래의 한국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토요일, 한글학교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곳 캄보디아의 한국아이들은 사람의 정을 많이 그리워한다고 한다. 때로는 이런 외로움과 그리움이 상처로 이어진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 구석이 먹먹해 졌다. 저렇게 밝게 웃는 아이들의 이면에는 한국에 있는 또래 아이들이 느끼지 못할 타지생활에서 오는 외로움이 숨어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냥 선생님의 역할만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필요할 땐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필요할 때에는 친구가 되어 신나고 즐거운 학교를 꾸려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밝게 웃을 수 있도록,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재타의 꿈을 꾸고 같이 꿈을 키워나갈 것이다. 벌써부터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린다. 역시나 여감이 좋다.

#번외. diary

재학이의 일기- 2011년 9월 0일 요일 날씨 맑음

앞으로 5개월 동안 활동할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원장님과 다일 가족들에게 환영인사를 받고, 원장님은 한국 일정으로 인하여 2주일 동안 자리를 비우셨다. 그 동안 우리는 밥퍼 활동에 적응하고, 캄보디아에 적응하며, 짜인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며 잘 살고 있었다.

그리고 2주 후 원장님께서 돌아오셨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질문을 하셨다.

“ 캄보디아에 와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뭐였어?”

가장 단순한 질문이지만, 질문을 받고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나를 보면서

‘ 아!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는 생각과 함께 부끄러워졌다.

팀 회의 중 나왔던 후원활동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내가 정말 이곳에 와서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게 되었고, ‘ 2주 동안 짜인 프로그램 아래 너무 수동적인 삶은 산 것은 아닐까’ 라는 반성도 해보게 되었다. 누가 억지로 보낸 것이 아닌 내가 신청하여 된 라운아띠, 자원 활동가.

“ 지역발전, 후원사업, 이벤트” 등 자원 활동가답게 내가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고 가능하다면 일을 벌이고, 이것이 정해진 프로그램만 하는 것보다 라운아띠, 자원 활동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앞으로 남은 기간 보다 능동적이고, 라운아띠, 자원 활동가답게!

성래의 일기 2011. 9. 12. 월요일 날씨 비

캄보디아에 온지도 벌써 10일이나 되었다. 이곳의 날씨는 매우 더워서 땀이 많은 나는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 썬크림이 흘러 늘 눈이 따갑고, 밥퍼활동을 할 때도 음식에 땀이 떨어질까봐 조심하게 된다. 하지만 장점은 남들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처럼 보인다는 것? ㅎㅎ

이번달은 적응기이기도 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새 학기가 시작되기에 밥퍼활동에 전념할 것 같다. 밥을 먹으러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의 변화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이곳에 와서 처음 아이들을 만난 것은 센터에 주일에배를 드리러 와서이다. 예배가 다 끝나고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라는 부원장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 어쨌든 예수(종으신 예수님)” 라는 인사를 건네며 한 줄로 서있는 아이들에게 한명 한명씩 눈을 맞춰가며 소보루 빵을 주는데, 어느 순간 허름한 옷에, 까마른 몸, 씻지 못해 지저분한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 참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들며 울컥했다. 눈물을 보이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꼭 참았지만 그날은 기분이 가라앉고,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곳에서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모습에 느끼는 감정이 변화되는 것 같다. 물론 지금도 가끔은 측은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그들의 미소에, 장난에, 다가옴에 자연스럽게 나를 맡기는 것 같다. 가끔씩은 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 부러운 마음까지 생긴다.

‘ 나라면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이 잘못을 하거나 심한 장난을 칠 경우 나무랄 수도 있을 것이고, 숙제를 안 해오면 혼도 내는 모습, 같이 웃고 떠들고 난리를 치는 모습들을 통해 내가 이 사람들을 도우러 왔다는 생각보다는 같이 살러 왔다는 것이 더욱 느껴질 기대해 본다.

정연이의 일기 2011년 9월 0일 요일 날씨 제목: 웃음이 늘었어.)

요즘 들어 웃고 있는 나를 자주 발견하곤 한다. 평소에도 감정에 솔직한 편이어서 웃기도 울기도 잘 하는 편이지만 요즘은 기분마저 색다르다. 웃음에 헤쳐졌다 ^^ㅋㅋㅋ

웃음바이러스에 감염이나 된 듯 웃는 것이 한결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진 느낌이다. 웃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만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조금은 야박??했던 나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정답을 내리자면 아마도 이 곳 사람들이 아닐까 싶다. 이곳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찡그린 표정, 찌푸린 얼굴을 찾아보기 힘들다. 자전거를 타고 시내구경을 하다가 그들과 눈이 마주치면 그들은 마치 친근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한 눈인사와

미소를 건넨다. 혹은 자전거, 자동차, 오토바이로 혼잡한 도로에서도 나의 서투른 자전거솜씨를 핀잔하지 않고 먼저 미안하다며 웃어준다. 나에게서 무척이나 낯선 풍경이었고 신선한 충격이었다. 또 이런 낯선 풍경이 나에게서 기분 좋은 자극과 반성이 된 듯하다. 처음에는 '나에게 웃는 것이 맞을까?'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익숙하게 서로 웃으며 손을 흔든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인사를 건넨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거리낌 없이 웃으며 인사를 건네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정겨운가? 한국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한데 말이다. TT하여튼!!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웃을 수 있는 이곳의 정다움이 너무 좋다. 먼저 눈인사를 건네주는 이곳 사람들이 너무 좋다.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즐겁다. 이곳에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도 나를 더욱 신나게 한다.

주민의 일기 9월3일 화요일 날씨 비 제목: 뜬 짬짬(물 많다) 많다)

입국 후, 우기임에도 비가 내리지도 않고 짹짹하더니 요 며칠은 계속 비가 온다. 처음으로 새벽에 출다는 기운을 느끼고, 가끔씩은 엄청난 빗소리에 잠에서 깨기도 한다. 아침에 밖을 나서는데 지대가 낮은 앞집마당은 벌써 물에 잠겼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강과 도로의 경계도 사라졌다.

처음에는 혹시 집이 물에 잠기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했지만 아무리 지대가 낮은 곳이라도 집 자체가 높게 설계되어 잠길일이 거의 없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상황은 물난리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계절이다. 항상 뜨겁게 사는 이들에게 지금의 우기는 더위를 식혀주는 즐겁고 시원한 시기이다. 우기의 캄보디아는 동양의 베네치아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건기와 분위기가 달라진다. 물이 많이 찼을 때에는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까지 보인다. 자전거도, 뚝뚝이도 갈 수 없는 길에 유일한 교통수단은 튼튼한 두 발이다.

허벅지까지 잠긴 길을 걸을때면 계곡에 놀러온 기분까지 든다. 낚시터가 된 도로, 다이빙대가 있는 수영장이 된 강, 모두의 놀이터가 된 로터리에서 물과 함께 노는 이들의 즐거운 기운이 나까지 즐겁게 만든다.

그러나, 10년만에 처음으로 물난리가 난 지금, 처음의 생각과는 조금 달라졌지만 그래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 가슴이 더욱 뭉클하다.

원영이의 일기 2011.9.15. 목

오늘은 재학오빠 생일! 다같이 맛있는 저녁을 먹고 정말 티나게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를 했지만 즐거운 생일이었기를... 생일 축하합니다~ 재학스라이^^

이곳에서의 생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너무 행복하고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실수 있는 집, 입을 수 있는 옷,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미안해지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그것 말고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작은 힘으로 무엇인가 큰 것을 바꿀 수 있을까? 나의 작은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까? 그리 특별하지도 않지만 내가 선택한 길에서 사소한 무엇이라도 깨달아야 할텐데... 그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내 캄보디아 생활에서 끝까지의 질문이 되어야겠다.

#번외2 녹색소비를 위한 캠팀의 다짐과 생활



1. 빈그릇운동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으로 삼시세끼 잔반을 남기지 않고 았다. 덕분에 편식도 줄어들고, 처음부터 먹을만큼 덜어먹는 습관이 생기고 았다.

2. 양치컵 사용

- 양치하는데 컵을 사용하면 절약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라고 한다. 아직 양치컵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단원도 있지만 5개월동안 배인 습관으로 한국에 돌아가서도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

3. 에어컨 틀지 않기

- 각 방에 에어컨과 큰 선풍기가 았다. 너무너무 더운날에는 에어컨을 틀까? 하는 유혹에 빠지지만 더위와 함께한지 한달째, 이제는 선풍기와 자연바람만 있으면 더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았다.



4.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전구 끄기

- 캄보디아는 태국과 베트남에서 전기를 수입해서 사용한다. 함께사는 숙소에는 많은 플러그와 전구가 았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보니, 누군가가 바빠서 미쳐 끄지 못한 전구, 선풍기가 작동되고 았다. 눈에보이면 바로! 실천으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전기요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았다.

#번외3 캄보디아 한달살이 5자토크

재학:살그만빠져-3kg빠짐

생태:덤벼라더위-하루에 땀을 드럽게 흘리고 있음

원영:일등기관사-폭주기관차의 일등공신 함께 폭주중

정연:폭주기관차-겉나 식량을 먹음

주민:팔근육증가-센터아이들을 기본2명이상 안고다녀서 팔근육이 증가함

#번외4 캄보디아 한달살이 자기반성 '팀 반성

취지설명- 자기반성으로 이번 달 반성과 다음달 어떻게 생활할지 생각하는 코너이다.

재학-시키는것만 하지 않겠습니다.

주민-체력을 조절하며 생활하겠습니다.

생태-도로에 물이차서 센터에 못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원영-피곤해도 썩내지 않겠습니다.

정연-내일걱정은 내일모레 이제는 NONO

팀반성- 수동적인 태도, 능동적이지 못함, 대화가 필요해, 취지지않

행복해지는 법

함께하는 팀 생활을 위해 격주 또는 한달에 한번씩 영화, 다큐, 책을 보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9월, 첫 주제로 다큐멘터리 행복해 지는 법을 보고 행복해지는 법과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 해보았다.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 해 볼 수 있는 시간이였다.

행복해 지는 법 속으로 gogo

Q1. 지금 나는 행복한가??

원영: 불행하지 않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행복은 소소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 삶 전체가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 특히나 이곳에 와서 걱정없이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배부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팀이 있다는 것.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면서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재학: 내가 예렸을 때 꿈꾸던 26살. 지금의 나와 비슷한가를 비교해 볼 때 많이 차이가 있다. 물론 가족의 평안함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는 만족하지만, 나 스스로 내가 꿈꾸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족. 10점 만점에 5점

정연: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 처해진 상황에 따라 확연히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내 나름의 행복을 정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이 물음에 답을 하자면 나는 대체적으로 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불안은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녀석이 조금은 내 행복을 상쇄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노력들이 모아지고 인생에서의 요령? 연륜?이 생긴다면 좀 더 이 상황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본다. 그렇잖아 이 물음에 대해서도 단번에 대답할 수 있겠지?

성배: 결론부터 말하면 행복한 것 같다, 10점만점에 8점. 청소년기, 입시, 인간관계, 군 복무 등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스스로의 노력, 운과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만족스럽고, 더 중요한 것은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또한 내가 가진 종교로 인해서도 행복감이 더 높은 것 같다.

주민: 행복하다. 하루하루 즐겁고 무사히 살아감에 감사하다.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서, 얼마만큼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지에 따라 느끼는 행복이 다를 텐데, 세끼 맛있는 밥 먹고,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서 행복이다. 물론 더 큰 기쁨이 있다면 행복도 커지겠지만 그 기쁨을 주는 일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0점만점에 8점

Q2. 행복 = 가진 것 / 원하는 것

정연: 원하는 것을 즐긴다는 것이 어떤 부분을 참아야하고 감수해야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후회나 간파하고 지나친 부분을 발전해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나는 무엇을 어떻게 원해 본 적이 없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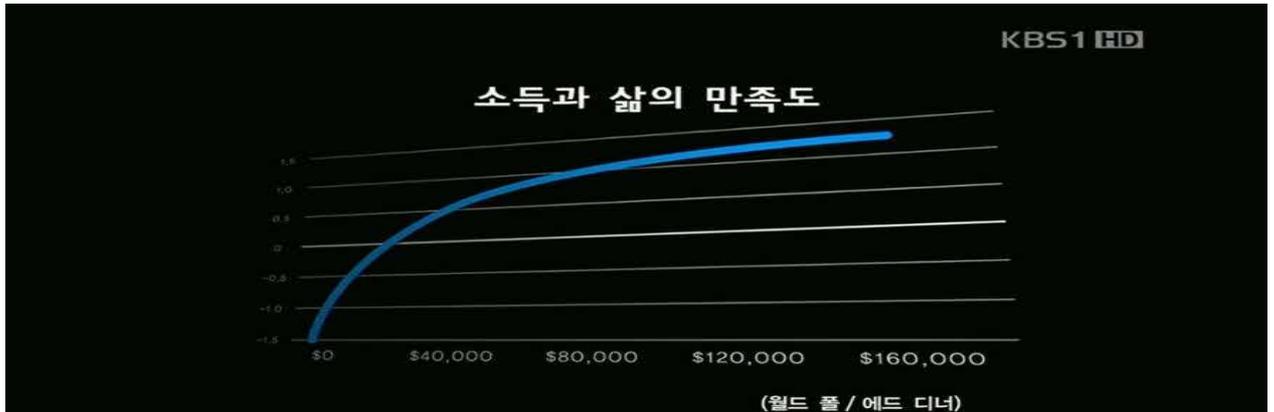
뿐더러 그렇다고 많이 또는 적게 가졌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이 물음도 대답하기 너무 힘든 것 같다. 이미 나도 눈치채지 못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것일까? 소박한 것도 나쁘지 않다^^

상대: 행복해지기 위해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은 나에게 있어 조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 같고, 가진 것을 늘리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다크에서 말한 공식과는 다르게 가진 것, 원하는 것을 구분 짓는 요소가 아닌 각자의 삶에서 원하는 것과 가진 것을 동시에 늘려나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원영: 역시나 개인의 차이.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행복을 깨달으셨지만 나는 이기적인 인간이라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과한 욕심은 버리고 중간점을 찾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점인 것 같다. 우선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 것에서 더 가질 수 있는 것은 쌓고 그 쌓아가는 과정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나의 이상향이다.

주민: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 가진 것이 많아져도 원하는 것은 그 배로 늘어날 것이다. 원하는 것과 가진 것의 차이가 클수록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다고 행복해지기 위해 원하는 것을 줄이라는 강요보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인 것 같다, 그렇다고 밥그릇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 나에게 맞게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학: 다크에는 행복해지는 법으로 두가지가 나왔는데 가진것을 늘리거나, 원하는 것을 줄이는 법. 내 생각에는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보단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것 같다. 목표를 이뤄 얻는 것에 대한 성취감이 행복인 것 같다. 현실에 만족하는 그냥 아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행복한 삶이 아니지 않을까?



Q3) 돈? 남의 시선? 자기 만족?

상대: 내가 여태까지 돈이 가장 많았던 직을 생각해보면, 전역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00만원 가까이를 모아본 적이 있는데 일을 하면서 나 스스로 모았다는 것과 손을 덜 벌리고 자취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행복했었다. 즉,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 것이 행복에 있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들의 시선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원하는 것보다는 남들의 시선을 더욱 신경 쓰게 된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훗날 후회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원영: 분명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한 일일 것이다. 언제나 나의 모토인 마음이 있는 일을 하고싶다. 그런 일 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머리가 굵어지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남들의 시선 또한 한 부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선택은 내 마음이 기우는 쪽이었다. 앞으로도 마음이 시키는 일을 선택하지 않을까. 설령 실패와 후회가 있어도 그것에서 또다른 배움을 얻을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연: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어느 정도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나 혼자만 행복할 수는 없으니
까. 내 주변이 나로 인해 불행하다면 나 또한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만족에 있어서 최우선은
'나'가 되어야 하지만 주변사람들의 인정과 격려와 걱정 속에서 나뿐만 아니라 함께 행복하고 싶다.

주민: 돈이 많으면 행복해 질 것이라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고 그들에게 부러움의 눈길을 받는 것, 이것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들의 지속 가능성보다 어떤 일을 하면서 얻는 자기
만족감으로 내가 행복하니까 남들도 행복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나만의 시선을 갖는 것이 훨씬 지속적인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재학: 물론 정답은 자기가 만족스러운 일을 하면서 남에게 인정받고 돈도 잘 버는 것이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나누어
서 봤을 때, 나는 남의 시선을 더 보는 것 같다. 남들의 시선은 좋지 않은데 홀로 만족하는 삶은 불행하지
않을까?

다큐 행복해지는 법을 보고 느낀 점

주민: 흔히 많은 돈을 가지지 못해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나보다 열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내가 살고 있는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 날들인가?
물질은, 많으면 물론 좋지만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명품을 갖지 못했다고,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직업을 갖지 못했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신만의 이상세계에 갇혀 평생을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원하는 것을 늘이는 혹은 줄이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현재에 감사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행복과 더 큰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 같다.

재학: 나는 지금까지 나의 주관 보단 남의 이야기에 따라 살아온 것 같다. 하지만 한번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이곳에 왔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게 행복이 아닐까 생각도 해본다. 돌아가면
치열한 경쟁을 할텐데 그 곳에서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

정연: 용기. 행복해 지려면 용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다. 나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 놓여있다. 행복하려면
그 선택의 순간에서 머뭇거리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일을 선택 하고 행동할 용기가 없다면 그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그 선택의 순간에 놓여있는 자체도 나에게도 행복일지도 모르겠다.

성태: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다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행복하지 않은 모습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비교하는 것, 그리고 덴마크와 같은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비교 등은 결국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OECD국가의 국민들보다 행복지수가 더 낮다는
연구결과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다큐에서도 결국은 같은 분야의 서적, 영상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는 그저 위로해주는 느낌만 든 것 같다. 보다 구체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관심에 대한 전환을
위한 해결방안 제시, 그것들을 진행하는 시민단체나 기관들에 대한 소개 등을 기대했었는데 그저 '행복은 물질
과 비례하는 것은 아냐'라는 따듯한(?) 메시지만 남기고 끝난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

원영: '행복'이라는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고 자극이 개인적이다. 그래서 누구나 행복해 질 수 있고
누구나 불행해 질 수 있다. 내가 이곳 캄보디아에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도 행복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였다.
망설이고 주저하고 눈치보고 그렇게해서는 절대 행복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야겠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찾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행복해 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슴에 되새겨본다. 캄보디아에서 느낀 행복이 나에게 또 다른 행복을 가져오겠지. 써바이써바이

#번외5. 9월 사진전



센터 옆 프놈끄라운 시장
헤어나올 수 없는
커피홀릭 봉지 커피



혼자서도 잘해요
계란말이 4개 도전!!



다일 미용실
꽃으로 머리 만져주기가
요즘 대세!!



계란말이 나가신다~



아이들 두명은 거뜬해요
껌딱지들이 붙어라~~



배에 포자가 있는 아이들!
이것이 운동방법??



한글학교 아이들은
예쁜선생님만 좋아해요!!

잘 어울리는 한쌍

